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제 7 회 국제학술대회 안내

2014년 현재 일본에는 18건의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후지산은 세계유산의 세 종류 문화, 자연, 복합 가운데, ‘자연’이 아닌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신앙의 대상과 예술의 원천’으로 자리매김된 후지산 정상에 신앙유적과 후지5호 등의 25건이 구성자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후지산 기슭에 위치한 가나가와켄 아시가라 지역은 1726년에 창건된 신우사(神禹祠)(현재 후쿠자와 신사), 문명(禹王의 별칭)비, 문명제와 같은 우(禹)문화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의 품격을 조성해 왔습니다. 물론 이같은 우문화의 형성은 신앙과 예술의 원천인 후지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동아시아의 문화가 접촉, 침투, 충돌, 융합의 문화교섭을 지속해가는 가운데 역사적 문화적 축적을 이루어 온 원풍경(原風景)이 있었습니다. 우 관련사적 및 우와 현대사회의 연관성 연구는 아직은 새로운 학문분야인 동아시아문화교섭학에 기여할 만한 좋은 사례입니다. 우 그 자체가 동아시아가 공유해 온 지적구축의 토대이자 한자문화의 상징적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시가라의 시민연구그룹을 중심으로 우문화 존속형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홋카이도에서, 큐슈,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100여곳 이상의 우 관련사적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각 지역에 분포해있는 우문화의 배경에는 인적 물적 교류에 의한 지(知)의 순환이 역사를 관통하여 작용해 왔습니다. 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인문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다각적 관점에서 해명함으로써, 문화교섭의 양상이 보다 리얼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우연구의 추진은 동아시아문화교섭학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지역·민간과 협력을 도모하는 연구모색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문의 방향성과 성과의 사회공헌도 등을 함께 논의하며, 연구활동의 지속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아시아문화교섭학 제 7회 학회의 개최지를 후지산을 바라보고 우가 진좌하는 가나가와켄 아시가라로 선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들 때문입니다. 후지산과 우라는 두 표상을 실제로 견문하고 학회발표의 기회를 통해 향후 연구활동의 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학회 회원들, 전문가와 민간 연구자, 해외 참가자와 일본시민의 다양한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져 서로를 향상시키고, 지적탐구의 대여정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차대회 주제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 시대’에 대한 책임— 문화교섭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개별 패널세션 주제

- 1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화사: 서적과 인물
- 2 동아시아의 근대사회와 민간신앙
- 3 치수신우왕 연구와 지역간의 문화교류
- 4 문화교섭학 시점에서의 동아시아지성사 연구의 제문제

- 5 동아시아의 근대학술 시스템의 구축
- 6 동아시아의 근대사관의 형성과 전개
- 7 동아시아근대 지식사와신문화사연구
- 8 기타동아시아문화교섭학과관련되는주제

회의일정

도 착	2015년 5월 8일 (금)
연차대회	2015년 5월 9-10일 (토, 일)
해 산	2015년 5월 11일 (월)

응모일정 및 심사결과 발표

회의는 기조강연, 개별 패널세션, 개인발표,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발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회원들께서는 위의 개별 패널세션 주제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패널세션은 2시간씩 배분되며, 사회자 1명, 지정토론자 1-2명으로 진행됩니다. 발표자가 사회자 혹은 지정토론자를 겸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 및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지 참가신청과 발표요지 400자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은 **2015年 1月 13日**이며, 대회준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분에 한하여 추후 정식 초대장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용

대회 특별초대대표 이외의 참가자는 왕복 교통비와 숙박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가비는 일반 6000円, 학생 3000円이며, 현지에서 현금(일본円)으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발표신청 접수처: 대회준비위원(sciea2015@hotmail.com)

- 동아시아문화교섭학회 제 7 회차 대회준비위원회
- 주 임 왕 민 (王敏, 부회장 호세이대학 국제일본학연구소 교수)
 - 부주임 장 칭 (章淸, 회장 푸단대학 역사과 주임)
 - 우치다 케이치 (内田慶市, 부회장 간사이대학 외국어학부 교수)
 - 사쿠마 토시하루 (佐久間俊治, 아시가라 역사재발견클럽 회장)
 - 오와키 요시오 (大脇良夫, 치수신·우왕연구회 회장)
 - 사무국 쓰유키 준이치 (露木順一, 가나가와켄 가이세이마치 전마치장)
 - 션 귀웨이 (沈國威, 학회사무국장 간사이대학 외국어학부 교수)